

가해자 43%가 동네사람

중앙대 의대 이영식·이길홍 교수팀 '여자어린이 성폭행 분석'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폭행이 올해 들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그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회장 홍강익)가 16일 여는 '아동학대의 치료와 개입'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앙대 의대 신경정신의학교실 이영식·이길홍 교수팀은 '신문에 게재된 소아 성폭력 사례에 관한 내용분석'을 발표한다.

조사 결과 80~88년까지 2개 일간신문에 게재된 여자어린이에 대한 성폭행건수는 12건이었으나 89년 들어 7월31일까지만 25건이나 발생,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아동은 국민학교 3학년이 14명(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생 7명, 국민학교 1학년 7명, 국민학교 2학년 6명 순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았다.

한편 가해자는 잘 모르는 경우(29.7%)보다는 동네사람(43.2%), 동거인(10.8%), 선생님(8.1%), 가게주인(8.1%) 등 안면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강간이 평소 아는 사람에 의해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연구조사(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89년 이대

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 재학생, 군인, 서점 주인, 목사, 교장 등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7건중 24.3%인 9건이 성폭행후 살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85년 개설된 서울 시립아동상담소 아동권익보호신

대부분 국교 1~3년생...대낮 범행 많아 피해아동 조기발견 심리치료 서둘러야

여성학과 대학원 논문)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성폭행이 일어나는 장소도 피해자나 가해자의 방(35.1%), 아파트건물 내부(10.8%), 가해자 가게(8.1%), 학교 화장실(8.1%) 등이었으며 시간도 낮 12시~오후 6시 사이가 56.5%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15~29세가 62.8%

고소에 올 9월까지 신고된 96건의 아동학대신고에서도 성적학대가 2건 포함돼 있으며 각종 전화상담기관에도 최근 들어 어린이 성폭행 피해 상담전화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성폭행 피해어린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성적행위에 집착하거나 퇴행된 행동을 보이고 △남자에 대한 공포반응

△우울증 △외출기피증 △불면증 등을 나타낸다고 지적하면서 주위에서 피해아동을 조기 발견, 심리적인 치료를 서둘러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성폭행을 포함한 아동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학대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제공을 보장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할 것 △체벌에 관한 법적 규정을 만들어 체벌에 대한 가치인식의 변화를 시도할 것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한국아동학대에방협회 776-5660
아동학대상담센터 △서울 777-9121~4 △부산 294-1214 △대구 621-1513 △인천 427-7330 △광주 522-4370 △수원 6-2049 △성남 43-9860 △광명 687-1544 △춘천 54-4130 △청주 53-4493 △대전 253-4020 △전주 82-7873 △나주 32-8991 △

포항 42-1881 △마산 46-0503 △제주 53-2740

서울대병원 소아과 치료상담실 7601-3409

어린이걱정상담실 927-9409

신나는 전화 336-6233~4

서울시립아동상담소 아동권익보호신고소 813-7741

〈김미경 기자〉

어린이 성폭행 잇따라

89.6.3

“과자사준다” 유인 한동네 6명 醜行도

국교생들 미성년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자주성이 추방을 주고 있다.

△서울유신경찰서는 3일 여자 어린이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해온 차모씨(57·무직·서울龍山구漢江路2가2)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차씨는 작년 4월초 집앞에서 놀고 있던崔모양(11·국교 4년)을『과자를 사주겠다』고 자기집으로 유인,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동네 여자 어린이 6명을 추행해온 혐의다.

△서울진동경찰서는 3일 세차례에 걸쳐 국민학교 여자 제 추행한 차모군(17·고교 3

년)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차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서울中浪一面牧4동의 아파트 앞에서 인모양(10·국교 5년)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4명의 국교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지난해말 정신진행증세를 보여 정기치료를 받고 있는 차군은 경찰에서 만화가게 등

에서 유란비디오를 보고 흉내를 내보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웃 獨身女 등 상대 13차례나 강도 폭행

서울서초경찰서는 3일 갈은아파트에 사는 송철 집대부나 독신녀를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금품을 빼앗고 폭행을 해온 姜純虎씨(24·주지·瑞草區 H아파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상습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진동경찰서는 3일 국교생 여자 어린이 4명을 강제추행한 차모군(17·고교 3

년)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차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서울中浪一面牧4동의 아파트 앞에서 인모양(10·국교 5년)을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 지금까지 모두 4명의 국교생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했다는 것.

지난해말 정신진행증세를 보여 정기치료를 받고 있는 차군은 경찰에서 만화가게 등